

17세기의 프랑스 수사학과 문체적 학설에 대한 제(諸) 문제 연구*

이 종 오

한국의국어대학교강사

< 목 차 >

- | | |
|------------------------|---------------------|
| I. 들어가기 | VII. 장식의 문체와 정념의 문체 |
| II. 문체의 문제와 수사학의 역할 | VIII. 은유(법)와 비유 언어 |
| III. 수사학(웅변술) 개념에서의 문체 | IX. 나가기 |
| IV. 수사학 교육에 관한 논쟁 | 참고문헌 |
| V. 문체의 구성요소 | Abstract |
| VI. 문체의 장르 | |

Key words(중심용어) : 수사학(rhetoric), 문체 학설(stylistic doctrine), 문체 장르(genre of style), 정념의 문체(figure of the passion), 은유(법)와 비유 언어(metaphor and the figured language)

국 문 요 약

본고는 17세기에 출간된 프랑스 수사학(웅변술) 관련 저서들의 특성분석을 통해 정립된 17세기 문체론 학설(學說)들에 관한 제반 문제를 기술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17세기의 수사학이 고전주의 문체적 학설의 진입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 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당대의 프랑스 주요 수사학자나 작가들이 내세운 문체의 정의와 형식, 문체 장르, 문체들을 중심으로 17세기 문체론의 중요한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17세기 문체이론가들이 내세우는 문체의 형식기 다양한 문체의 문체들이 관련되어 나타나는 작시법에서 문법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17세기 문체론 기능기 역할을 재평가하였다. 본고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수사학의 경험들과 원칙들의 영향을 받은 17세기 문체론의 학문적 확립과 운용을 위하여 17세기 수사학과 문체 이론에서 정립된 수사학의 원천과 학교 수사학과와의 관계들, 수사학의 죽음과 재탄생에 관한 이념논쟁, 문체의 구성요소, 문체의 장르, 은유와 비유 언어 등을 당시의 수사학자들의 시각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08-A00710)

I. 들어가기

17세기 프랑스에서의 문체적 학설에 관한 연구는 고전주의의 미학적 원동력을 제공한 수사학에 기반하고 있기에 17세기의 문체 특징은 당대의 수사학자나 작가들에게서 아주 뚜렷하고 자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고전주의 문체론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로마시대의 수사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퀴틸리아누스, 롱기누스의 수사학에 버금가는 경험들과 원칙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부 이론가들에 의해 비난을 받기도 하였던 당시의 문체적 학설들은 옛 수사학자들의 권위와 명성을 많이 실추시키기도 했지만, 고대 수사학자들의 영향력은 프랑스 고전주의 문체론에 가장 중요한 형식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본고는 17세기의 프랑스 수사학을 이해하지 않은 채 당시의 문체론 학설이나 경향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학을 문체 그 자체, 즉 문체론의 영역 또는 원칙들과 관련지으면서 문체이론들의 적절한 형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17세기의 진정한 문체이론 및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표현방법들에 관한 자세한 지식, 표현법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들, 이성적 문체의 규칙들에 이르게 한다. 또한 이 연구는 17세기 문체이론가(수사학자, 작가)들이 순수한 문체, 자연적인 문체, 논리적인 문체, 관례적인 문체를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이 왜 유난히 나쁜 취향의 글쓰기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고, 문체의 학문, 이성에 근거한 학문, 부분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더욱 통찰력 있고 분명한 학문을 만들어야만 했는가라는 점을 착안하여 연구하려한다. 당연히 문체는 수사학에서의 웅변술이라는 중심적 문제의 일부였고, 당시의 작가나 이론가들에 있어 문체는 수사학(웅변술)과 동떨어진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웅변술 덕분에 자신들의 사유와 감정을 문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하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의 수사학 저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파스칼의 ‘웅변술은 사유의 묘사’라는 정의는 현대수사학에서 다시 나타나는 개념이며, 이 말은 17세기가 수사학과 문체론 연구가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개념이기도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17세기 프랑스의 수사학자들이 고전주의 문체론 학설에 제공하는 문체의 개념과 형식,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수사학의 경험들과 원칙들의 영향을 받은 17세기 문체론에 관한 특성, 수사학 교육의 찬반논쟁, 즉 수사학의 이념논쟁, 문체의 구성요소, 문체와 정념, 은유, 비유 언어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문체 이론들에 관한 제반 문제의 기술은 17세기의 수사학 저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작가들이 작품 속에 담아냈던 담론을 통한 고전 문체론의 정체성을 밝혀줄 것이다.

II. 문체의 문제와 수사학의 역할

17세기 프랑스에서의 문체에 관한 문제들은 고대 수사학자들의 경험들과 원칙들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에는 일부 학자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고대 수사학자들의 권위와 명성에 금이 가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고대 수사학의 영향력은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문체론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문체적 학설의 제(諸) 문제에 관한 비물질적, 즉 ‘의식적’ 혹은 ‘정신적’ 특징은 17세기 문체론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7세기 이론가들은 문체의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문체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상당히 ‘의식적인’ 반응과 활발한 활동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 은폐되어 ‘무의식적’이었던 낭만주의시대와는 매우 달랐다. 당시의 이론가들은 문체의 개념을 위한 정의를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문체와는 관계가 먼 영역과 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문체의 장르들까지도 규명하려고 했다. 또한 그들은 문체 효과의 비밀들을 찾고자 했고, 예술적 표현에서 가변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의미들을 정착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문체의 비물질적인 부분과 ‘알 수 없는 그 무엇(je ne sais quoi)’을 정의하고 분석하여 그것들의 적절한 형식을 구축하려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7세기의 진정한 문체적 학설이 세워졌으며, 이것은 표현 방법들의 상세한 지식, 표현법(elocution)에 관한 구체적 개념들, 이성적인 문체 규칙들에 도달하기 위함이었다.

17세기 문체들의 뚜렷하고 의식적인 특징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수사학이론의 영향, 예를 들면 ‘장르’의 적용에 있어 적합성(bienséance)¹⁾의 논리에 도입하는 키케로의 규범들, 퀸틸리아누스의 화법(話法)의 종류 또는 표현방식(genera dicendi), 문체의 문제를 음악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발전시키는 악절인 페리오데(periode), 즉 악절의 수(數)와 조화의 문제 등으로 설명된다. 고대 문체이론에서 문체의 제반 문제들을 찾으려 했던 17세기 문체 이론가들은 고대의 연구자들 자신도 스스로 인정했던 ‘이성적 사유의 나약함’과 ‘규칙들의 불충분함’이라는 논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들은 문체 표현에 관한 세부 묘사와 모든 표현의 섬세한 의미를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대의 모델들을 가까이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17세기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당시의 문체 이론가들은 순수한 문체, 자연적 문체, 이성적이고 논리적 문체, 적합한 문체 등을 만들었어야만 했으며, 악취미(mauvais goût)와 싸워야만 했고, 문체론의 학문분야, 이성에 근거한 학문분야, 부분보다는 전체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통찰력 있고 분명한 학문분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문체, 즉 표현에 관한 상세한 모든 설명과 표현의 섬세하고 미묘한 의미 차이를 알아야만 했다.

17세기 문체 이론들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교수법 개론서들에 의해 마련된다. 이러한 17세기 문체론의 기원에 관한 첫 징후는 문체 학설을 담고 있는 학교 수사학에서 나타난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문체 학설의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수사학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고전문체의 학설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당시의 학교수사학 교본은 그 때까지도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에 그것은 프랑스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외국저자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17세기의 문체 학설은 수사학에서 그 체계가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1) 그리스시대에는 적합성의 특질을 프레폰(prepon)으로, 로마시대에는 데코룸(decorum)으로 번역된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이론에서는 위와 같은 적합성의 개념을 일치(convenance), 정확함(justesse) 등의 다른 명칭으로 거론되었다.

문체에 관한 팔목할만한 연구는 17세기말경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많은 이론가들 가운데 특히 라팽(R. Rapin 1672와 1676)과 부우르스(D. Bouhours 1671과 1687)에 의한 이른 바 고전주의(classicism)의 문체는 이미 수사학이나 웅변술의 범위에서 벗어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학문분야가 된다.

III. 수사학(웅변술) 개념에서의 문체

17세기에 문체라는 개념은 수사학과 웅변술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17세기 수사학자들은 문체라는 낱말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수사학’이라는 낱말은 웅변술의 문체(style oratoire)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고 단지 수사학적 문체만이 존재하였다. 또한 문체는 수사학의 일부이기는 했지만, 문체가 수사학에 의해, 수사학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았다. 오늘날의 ‘문체’라는 낱말의 개념보다 상당히 좁은 의미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17세기에서의 문체는 낱말들(낱말의 선택, 올바른 관용어법)과 페리오데(악절의 수와 조화)에서 나타나는 비유 언어의 문제였다. 당시의 이론가들은 문체보다는 오로지 웅변술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다.

수사학은 특히 문체의 학문분야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의미했다. 보즈라스(Vaugelas)에 따르면 문체라는 낱말은 제한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는 문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체의 자질에는 반드시 정확성(pureté)과 명료함(netteté)의 조건들이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문체를 오히려 ‘문법적’이고 언어적 관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언어와 문체의 정확성은 낱말들, 문장들, 소사(particule)에 관계하며, 통사법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명료성은 낱말의 배열, 구조 또는 위치에만 관계하며, 이 모든 것은 표현의 명확성에 기여한다(Vaugelas 1647, 567)”

17세기의 수사학은 ‘잘 말하는 기술’이었고, 웅변술은 ‘사과의 묘사’였다. 바리(Bary)와 라 메나르디에르(La Mesnardière)에 따르면 수사학, 즉 말 잘하는 기술은 시인과 웅변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사학과 시학의 통일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사학이라고 부르는 말 잘 하는 기술은 시인과 웅변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감상하게 하기 위하여 문체를 만들어내는 모든 지식을 획득하고 나서 글을 쓰려고 하는 이들을 의심하지 말아야한다(La Mesnardière 1639, 326)”

위와 같은 사실은 17세기의 문체학자들이 생각했던 웅변술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견해이다. 당시의 문체학에 있어 문체는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문체가 아니라, ‘수사학에서의 웅변술’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에 속했다. 문체는 본질적으로 수사학에 의한 문체(figures)의 사용만을 의미하

지는 않았고, 웅변술은 17세기의 문학가에게는 일반적인 것임도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했다. 수사학(웅변술)은 예술적 표현(expression artistique)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다. 이를 테면 라신느와 파스칼의 문체는, 코르네이유의 문체와 마찬가지로, 수사학에 속해있었다. 그렇지만 코르네이유의 문체는 또 다른 수사학적 개념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표현의 기반과 방법들은 같았지만, ‘표현 방식(genera dicendi)’만은 달랐던 것이다.

한편 17세기 문학가들은 웅변술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사고와 감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를 테면 웅변술이 사고를 표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면서, 수사학은 부분적으로는 하나의 논리학의 학문이 되었으며, 웅변술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수사학은 필연적으로 심리학의 학문분야가 되었다. 이처럼 사고와 감정은 페리오데, 문체들과 마찬가지로 웅변술에 속해 있었고, 그것들은 웅변술에 반드시 예속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Mornet, 1929, 88). 따라서 웅변술은 표현 방법의 학문, 즉 문체론의 학문분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즉 웅변술은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분야였던 것이다.

실제로 17세기 수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파스칼의 ‘웅변술은 사고의 묘사’라는 정의는 현대 수사학에서 다시 나타는 정의이며, 이것은 수사학과 문체 연구가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정의이기도하다. 17세기말에 이르러 이러한 문체는 결국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남아있었으며, 문체에 관한 문체는 당대의 학자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면에 수사학은 순수하게 변론의 학문, 즉 웅변술로 변화되었다. 이때부터 진정한 문체 이론과 변론의 원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IV. 수사학 교육에 관한 논쟁

17세기 수사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고전주의에 관한 예술적 경향을 표현하는 학문분야였다. 수사학을 예술적 표현과 동일시하면서 수사학과 시학의 통일성을 강조하던 당시의 수사학은 전형적인 프랑스적 표현의 학문 분야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사학에서의 문체 교육은 한편으로는 ‘문체들의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한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7세기 초 웅장함과 숭고미를 편애했던 악취미(mauvais goût)의 과장(법)과 강조(법)의 사용은 이러한 수사학 교육에서의 문체 사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고, ‘잘못된 허위의 웅변술’, 지나친 장식의 문체, 완곡하지만 지나치게 멋 부리는 방식 등을 유행하게 했다. 이 가운데 잘못된 허위의 수사학은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 상당한 반발을 샀으며, 급기야는 반(反) 수사학적인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에는 미학적, 도덕적 동기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으나, 나중에는 학문과 기술로서의 수사학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에 이르자 수사학 그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도 전에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본래의 수사학이 가지고 있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반대투쟁이 지속되었다.

맨 처음 수사학 교육에 대한 반대운동은 고전주의 취향에서 출발한다. 고전주의 장르, 즉 숭고 장르(genre sublime)에서 볼 수 있는 과장의 문체 사용, 고상한 언어, 은유법, 의미의 확대 등의

사용에 대한 거부가 그것이다. 웅변술의 사용에서 운율과 절제를 권고하는 수사학 교육의 반대론자들(대표적 수사학자로는 라미, 페늘롱, 뒤 부아 등이 있다)은 수사학을 한낱 가치도 없는 부질없는 분야로서, 구체적인 목적도 없고,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바리(Bary)는 이러한 수사학 교육의 반대자들로부터 수사학의 기술(법)을 지켰고, 뒤 루르(Du Roure)는 수사학 교육의 장점들을 설교하였으며, 지베르(Gibert)도 라미가 신랄하게 공격했던 학교수사학 교육을 옹호하였다. 『프랑스 수사학』의 저자 바리(Bary)는 능숙한 웅변술로 수사학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여러분, 수사학은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수사학에는 문체의 화려함이나 찬란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어둡고 침울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학이 혼란스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나는 겨우 수사학의 장점에 빛지고 있는 것을 झा야 할 것입니다. 수사학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하여 빛지고 있는 것을 이행해야 하듯이 말입니다(Bary 1659, 239)”

또한 게레(Guéret)는 자신의 저서에서 수사학과 웅변술의 쇠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의 시대는 허위의 수사학 때문에 병들어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의 시대가 그 병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병의 치료책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 금세기 말의 웅변가들의 웅변술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이 없고, 완전하지 않은 미완성의 원고와 같은 몇몇의 웅변가를 만나봐야 역시 소용이 없다. 나는 웅변술을 많은 과도한 대중들의 표현 하에서 숨소리 죽여 은폐되어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 또한 완전히 야위고 핏기 없는 환자처럼 보기도 한다 (Guéret 1666, 9와 187)”

그러나 진정한 수사학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보전되었으며, ‘허위의’ 웅변술과 ‘진정한’ 웅변술 간의 차이에 관한 논란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정쟁의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두 웅변술의 차이는 수사학을 옹호하는 이들의 고전적 향년의 소재였지, 그것은 결코 궤변은 아니었다.

17세기 말에 이르러 일부 이론가들은 자신들만의 원리와 체계를 통해 수사학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수사학을 거짓이자 부패한 것으로 여겼고, 설득 방법과 환심을 사려는 수사학의 경향을 비난하였다. 그들의 논거는 미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고 도덕적이었다. 비난 대상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세속적이었고, 진리보다는 미사여구의 장식을 선호하는 교회의 설교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페느롱(Fénelon)이 『웅변술에 대한 대화』(1718)에서 보여준 논거들은 설교 웅변술의 개혁을 점점 더 긴박하게 만들었다. 뒤 부아(Du Bois)는 지성과 상상력의 차이를 밝히면서 설교 웅변술과 일반 수사학의 반대 의사를 준엄하게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진리는 지성을 통해 인간과 관계하기 때문에 설득은 지성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지, 상상력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학은 상상력에 의해 작용한다. 따라서 수사학은 잘못된 허위이고, 항상 결함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것이다. 뒤부아는 설교자의 상상적인 웅변술을 비난하면서 수사학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사학은 상상력이 있는 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수사학은 자신의 제국에서는 자연 주체가 된다. 수사학은 극도로 그러한 자연 주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것들을 변

모시킨다. 그런데 수사학은, 그것이 설득하는 상상력만을 통해서, 자연 주체를 참과 거짓, 또는 찬성과 반대로 설득할 것이다(Du Bois 1694, 31)”

이러한 엄격한 이론에 대한 수사학자들의 반응과 특징들은 아주 진지하게 전개되었다. 같은 해 수사학 교육을 적극 도입해야한다는 아르노(Arnaud)는 부알로(Boileau)가 찬미한(“우리의 언어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수사학 분야에서도 역시 이보다 더 우수한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 뒤 부아의 텍스트에 대해 반격을 가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수사학 교육에 찬성하는 아르노를 비롯하여 부우르스(Bouhours), 실리리(Sillery)는 『설교자의 웅변술에 대한 숙고』라고 명명된 모음집에서 뒤부아와 라미(Fr. Lamy)의 논거를 거부하고, 수사학 교육의 찬성을 주장한다. 부우르스가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에 따르면 웅변술의 첫 번째 사용목적은 단지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기 때문에 수사학은 순수하게 논리적인 학문이 될 수 없고,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는 분야라는 것이다.²⁾ 반대로 뒤 부아의 사상(“가슴으로 생각에 이르는 것과 상상으로 마음에 이르는 것”)을 계승하고 있는 베네딕트회의 일원인 라미는 『자기 자신의 지식에 대한 개론서』에서 잘못된 허위의 웅변술(Lamy 1694, 378), 즉 ‘진정한’ 수사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정한 수사학은 명증성, 영향력, 우아함을 가진 진리를 설득하는 기술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결과로써 훌륭한 웅변가는 우선 자연의 이치에서 모든 논거를 수집, 정리해야한다. 또한 비중이 가장 높고 적합한 논거들을 생기가 넘치는 문체와 장중한 이미지로 장식한 후에야 잘 다듬어진 문장과 고유하고 고결한 표현들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Lamy 1694, 12~13)”

그러나 수사학을 지지하는 장세니스트들(Jansénistes)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오라토리오회의 지베르(Gibert)는 라미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학교 수사학(rhétorique de l’école)’을 옹호하고 있다. 그가 『진정한 웅변술에 관하여』에서 제안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Gibert 1703).

- 5장 : 일상 수사학이 정신과 마음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거짓이다
- 9장 : 감각적인 정신과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미지는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 10장 : 일상 수사학은 정신의 능력과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
- 11장 : 일상 웅변술은 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구속하지 않으며, 잃게 하지도 않는다.
- 13장 : 일상 웅변술은 정신의 올바름이나 좋은 취향에 해롭지 않다.
- 22장 : 정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설명은 웅변가에게 유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미는 자신의 주장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그는 공개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사학 교육을 단호하게 비판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

2) *Réflexions sur l'éloquence des prédicateurs*(1695)은 부우르스(Bouhours), 라미(Fr. Lamy), 실리리(Sillery), 아르노 등의 논쟁 문서들이 담겨있는 모음집이다.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작가들이 그토록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다녔던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상당히 많은 문체를 기억하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들을 수사학에서 배우기를 원했던 이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지 않는가? (...) 수사학은 자연적인 기술이 아니고, 자연보다는 오히려 기교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수사학은 허구의 기술이요, 환상과 위선의 기술이란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야만 한다(Lamy 1704, 80~81)”

오랫동안 지속된 이러한 논쟁에서 라미를 비롯한 수사학교육의 반대론자들은 옹호론자들의 비타협성, 강경함, 분별력의 결여를 지적하면서 문체의 외양적 장식을 거부하였고, 지적 기능을 가진 간결하고 냉정한 문체를 원했다. 반면 수사학의 옹호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술적 표현의 원칙이었고, 미의 원칙, 이를 테면 문체의 원칙이었다. 그들은 ‘마음’과 상상력, 즉 감각적인 것-문체의 최상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설득적인’ 웅변술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특정한 몇 개의 표현방식이나 표현들의 사용만을 수용하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좋은 문체의 원칙들과 조건들, 예술의 정당성을 지지하였다. 결국 17세기말에 이르러 이 두 논쟁은 수사학 교육의 옹호론자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후 수사학은 엄격한 웅변의 기술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품위 있고 예술적인 형식에서 표현되는 사고와 감정에 의해 증명되고 정당화된다. 이때부터 수사학 분야는 표현에 관한 미학적이고 문체적 학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시의 대표적 수사학 옹호론자인 라팡과 부우르스에 의해 문체의 개념은 구체화되었으며, 문체와 관계없는 모든 것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V. 문체의 구성요소

17세기 문체 이론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대원칙이자, 필수적 요소는 고전주의의 취향이었다. 그들의 수사학은 규범이나 원칙의 단순한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와 철학적 기반을 갖춘 문체적 학설을 담고 있다. 당시의 이론가들은 웅변술은 어느 정도 정의했으나, 문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는 못했다. 문체는 웅변술에 종속 혹은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웅변술의 원천과 수단은 양식이고, 양식은 곧 이성에 의해 결정된다. 키케로, 호라티우스, 퀸틸리아누스와 같은 고대수사학들과 마찬가지로 17세기의 수사학자들도 ‘양식’을 훌륭하고 좋은 문체의 원천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웅변술은 문체의 구조가 아니라, 문체의 요소들이었다. 따라서 문체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매우 중요하다. 이론가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17세기에는 문체의 물질적 측면(낱말, 장식, 문장)과 비물질적(정신적 또는 의식적) 측면이 구별되고 있었다. 특히 매우 예민하고 미묘한 정신들은 비물질적인 지식에 속하며, 여기에서 이성에서 벗어난 문체를 정착시키려는 17세기 이론가들의 시도를 목격하게 된다.

17세기 웅변술에 관한 개론은 낱말들, 총합문(*périodes*)³⁾, ‘알 수 없는 그 무엇(*je ne sais quoi*)’과 같이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무엇’은 문체의 비물질적인

3) 수사학 용어로서 여러 개의 절이 조화를 이루며 구성된 긴 문장.

부분을 가리킨다. 자코베(H. Jacobet)는 그의 논문에서 이러한 사상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역사가들의 견해와는 다르게, “알 수 없는 그 무엇은 우리에게 언어학적 문제들과 심리적, 도덕적 분석에 대하여 예측(규명)할 수 없는 사태를 주고 있다”(Jacobet 1928, 13)고 밝히고 있다. 그는 보즐라스, 라 모트(La Motte)를 비롯한 동시대의 학자들에서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이미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론을 17세기 말의 저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수사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체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은 낱말들, 미사여구의 장식들, 문장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정의할 수 없으며 규칙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알 수 없는 그 무엇은 바로 논리나 이성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어떤 매력과 멋진 것이다. 좋은 저자는 문체의 미로부터 생겨난 이성을 넘어선 상징적 영향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의 요소를 잘 알고 있는 베르나르 라미(B. Lamy)는 문체론적 차이들을 그 차이가 가진 외적인 특징들로 보고 있다.

“기질과 성향들의 다양성은 문체를 여러 가지로 변화 시킨다. 사람과 기질은 아주 특별한 자기만의 문체를 각각 지니고 있다 (...) 문체의 특징들은 상상력, 기억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의 정신적 자질에 달려있다(Lamy 1675, 198과 189~190)”

동시대의 여러 이론가들에 내린 문체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자. 오지에(Ogier)에 따르면 문체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낱말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의 구성”(Ogier 1624)에 관한 것이다. 보즈라스(Vaugelas)에 따르면 문체의 정확성(pureté), 명료성(netteté)에는 덧붙여야 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낱말과 문장의 특성, 고상함(élégance), 부드러움(douceur), 장중함(majesté), 영향력(force) 등이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라 일컫는 정취와 우아한 멋, 수와 운율의 조화, 표현의 간결함과 소박함(naïveté) 등이 생겨나는 것이다(Vaugelas 1647, 592~593). 생폴(Saint-Paul)은 『프랑스 웅변술의 목록』에서 다음과 같은 문체의 구성요소들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다.

- (1) 문체는 비교적 유연(有緣)성이 결여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파롤보다는 대중의 말투(또는 어법)와 공통의 방식을 토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문체는 문장의 미나 문체(figure)의 호의에 의해 장식되고, 보강되는 것이다.
- (3) 문체는 유려해야 하고 파롤과의 연관성은 생각, 어휘의 잘못된 결합이나 거슬리지 않는 부드러움 또는 우아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4) 문체는 모호함이 없고, 친함이 없는 예리한 표현들을 갖추어야 한다.
- (5) 문체는 활력이 넘쳐야 하고, 문체에 의해 살아 숨쉬어야 한다.
- (6) 뛰어난 문체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문장이어야 하고, 지나치게 산만하지 않고, 너무 짧지 않은 총합문에 의해 확장되어야 한다(Saint-Paul 1632, 84~108).

따라서 17세기 문체의 취향과 경향은 문체의 물질적인 부분인 낱말, 장식, 문장 등에 웅변가가 받아들인 세 가지의 방식, 즉 파롤의 장식, 사태의 배열, 기지 넘치는 언행을 덧붙이는 문체의

형식적인 자질, 즉 문체의 분석이나 구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VI. 문체의 장르

장르의 문체는 장식의 문체보다 앞서 나타난다. 실제로 장르의 문체는 17세기 수사학의 중심 축이었고, 문체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가들은 장르의 문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들은 장르가 자신들이 구현하려는 문체의 이상적 특징을 구성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르’의 문체는 모든 수사학의 첫 번째 구상이었다.

고대 수사학자들은 숭고한 문체(style sublime), 평범한 문체(style médiocre), 단순한 문체(style simple)와 같은 3문체의 장르를 보편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17세기 프랑스 작가들도 역시 이러한 문체의 구별을 그대로 채택하여 작품의 집필에 사용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각각의 문체에 적합한 세 장르의 특징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숭고 문체는 폭이 넓고 풍부한 문체(figure)를 갖춘 아주 잘 장식된 문체, 평범 문체는 장식과 절제 간의 균형을 맞춰져있는 문체, 단순 문체는 덜 에두른 방법으로 사태를 표현해야만 하는 문체를 의미했다.

또한 장르의 문체는 모방의 문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키케로의 모방주의는 숭고 장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전반의 ‘바로크’라 부르는 전기 고전주의 취향의 발현들이다. 반면에 17세기 후반에 일어난 반(反) 키케로의 모방주의는 숭고 장르, 문체의 빈번한 사용과 장식들을 비난하면서 절제와 문체의 균형을 요구하였다. 17세기 문체론 발전을 결정하는 이러한 두 장르는 문체적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대립관계를 낳았다. 이를 테면 전기 고전주의의 취향은 문체효과의 확장 또는 확대(amplification)로, 후기 고전주의의 취향은 문체효과의 감소 또는 약화(amortissement)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체적 이상을 바라보았다.

고대의 숭고 문체를 따르는 바리(Bary)는 3문체 장르를 구별하면서 탁월한 문체(style excellent)를 제시한다. 그는 탁월한 문체를 위해 우언법(périphrase)⁴⁾, 복수의 사용, 최상급, 장중한 음으로 마감하는 낱말, 위엄 있는 고급의 낱말과 부사 등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Bary 1659, 269), 르노(Renaud)도 역시 문체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3문체 장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숭고한 또는 장엄한 문체는 예를 들어 공공의 행위에서 (...) 평범한 문체는 일상 대화에서 (...) 하급의 문체는 희극이나 익살극에 사용한다(Renaud 1699, 123)”

17세기의 대표적인 숭고 장르의 수호자인 오지에(Ogier)는 장르의 고유한 특징에 관한 문체를 가장 변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17세기의 서사적 문체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숭고 장

4) 매우 고상하고 품격 있는 문체적 이상을 추구하는 생-폴(Saint-Paul, 1632, p.86.)도 역시 일정한 형식의 우언법을 조연하고 있다

르를 전적으로 선호하면서(Ogier 1627, 99), 전기고전주의의 취향, 웅대함의 취향, 숭고함의 취향, 서사적 취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취향과 유사한 위대한 문체는 역시 과장(법)이다. 이러한 과장을 옹호하는(키케로주의를 특징짓는 하나의 새로운 특성이다) 그의 언급을 보자.

“강렬한 문체들과 관련될 때, 연설가가 생동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가 설득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줘야 할 때, 연설가는 특별하고 비범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Ogier 1627, 162)”

17세기 수사학(웅변술)은 이러한 전기 문체 이론의 서사적 정신에 숭고한 장르와 고상한 문체들을 부여함으로써 서사적 행위의 취향과 숭고 장르의 취향은 공통의 기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의 문체 이론가들은 숭고 장르를 완화하려고 애썼으며, 심지어는 숭고 장르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 예로 당시의 학자들에 의해 가장 커다란 비난의 대상에 되었던 문체가 바로 숭고 장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과장(법)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브르뜨빌(Bretteville)은 숭고 장르의 또 다른 특성인 둔호법의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하면서(Bretteville 1689, 209), 과장법을 17세기에 사용하는 문체의 취향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나는 과장법과 확대된 표현들이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시대의 취향이 아니라는 점을 말할 수 있다(Bretteville 1689, 296)”

특히 고전주의의 이상을 강요하는 라 메나르디에(La Mesnardière 1639, 391)와 라팽(Rapin)은 숭고 장르의 문체 장식을 거부하고, 완화되었거나 절제된 문체의 사용을 요구하면서 고전주의 취향의 법칙을 ‘과도함’보다는 ‘과도하지 않음’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너무 강하고 교묘한 과장으로의 회귀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사소하거나 약한 것에 지나친 효과를 부여하거나, 웅대함의 모든 효과를 내기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대단한 것을 그 이상으로 부각시키려는 무모함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Rapin 1709, 38)”

이처럼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문체와 언어의 정화와 간결함에 따른 장르의 변화는 17세기 전반의 숭고 장르를 지지하는 키케로 모방주의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가 된다. 이러한 반키케로주의 특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17세기 고전주의 문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7세기 후기에 등장한 고전주의적 인 문체 확장 의역제, 절제의 경향은 18세기의 문체적 이상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17세기의 문체 이론가들은 과장(법)에 대해 유보적인 절제의 입장을 권유했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거나 과도하지 않은 ‘중용(juste milieu)’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VII. 장식의 문체와 정념의 문체

17세기 이론가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다양한 문체였다. 음악적 직관을 가진 사람들은 숭고 문체의 버거운 긴장을 참아낼 수 없었으며, 또한 단순한 하급 문체의 무미건조함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 병행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체를 자연(Nature)과 적합성(Bienséance)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문체의 다양성은 더 많은 예술적 효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숭고 장르를 지지하는 이론가 게레(Guéret)와 니콜(Nicole)은 위와 같은 일반적 규칙의 적용에 반대를 하면서 각각의 주제에는 그에 알맞은 장르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17세기의 문체 체계는 위대하고 고상한 용어로 사소하고 일반적인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용어로 위대하고 고상한 것들을 표현하려는 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문체와 장식들은 모든 종류의 담론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담론에는 필요로 하는 문체와 장식들이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다(La Mesnardière 1639, 327).

17세기의 거의 모든 이론가들은 장식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뒤부아(Du Bois)나 라미(Fr. Lamy)와 같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지와 문체의 사용을 비난하였지만, 실제로 자신들도 설교나 강의에서는 그것들을 자주 사용하였다. 지베르(Gibert)는 자신의 저서 『수사학에 관한 성찰』에서 이미지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성의 진리(깨달음)를 통해 지각 능력을 가진 이미지를 관찰한다면, 그 이미지들은 사유나 표현만큼이나 담론의 중요성, 우아함, 영향력, 고귀함, 아름다움, 명료성, 멋, 쾌활함에 기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Gibert 1706, 12)”

17세기 후기의 이론가들은 숭고 장르에서의 과장과 문체의 사용을 비난하였지만, 그렇게 거세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숭고 장르를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나 영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체의 사용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라팽(Rapin)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고 있다.

“시에 있어 현대 시인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특정한 수사학이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하게 말해야만 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할 것인가를 잘 아는데 있다. 또한 그 기술은 장식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를 잘 인식하는 것이다(Rapin 1709, 150)”

따라서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문체들을 사용해야하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이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적합성의 법칙을 실현하는 17세기 수사학은 이러한 질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답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문체들은 자연의 요구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문체와 은유의 사용을 결정해야하는 유일한 안내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문체와 은유들이 자연과 알맞게 결합되거나, 오해 없이 순응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Rapin 1709, 145)”

마찬가지로 브르트빌(Bretteville)은 자연에 의한 완벽한 문체의 역할을 표명한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왔던 웅변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자연적 수사학이 인위적 수사학보다는 더욱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농부들에게서 가장 자연발생적인 문체의 사용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다.(Bretteville 1689, 204) 니콜(Nicole) 또한 자연의 조건을 통해 문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체는 자연을 보완해주고, 자연이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간결하고 절도 있는 문체를 권고하고 있다.

“은유(법), 과장(법), 단순하고 자연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먼 다른 유사한 문체들은 자연에 대한 거부감과 허약함에 대한 치료수단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절도 있게, 간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방법이다(Nicole 1664, 22~23)”

이와 같이 17세기 이론가들이 문체를 미학적 관점, 즉 장식으로서의 문체를 다루었다면, 그들은 다르게 라미(B. Lamy)는 ‘심리적 해석’을 통해 문체를 설명하고 있다. 문체를 정념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미는 정념의 이론을 통해 단어의 배합이나 조합으로서의 진의(trope)와 문체의 형성과정을 설명한다. 17세기에는 문체를 이성과 자연의 도움으로 해석한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체를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라미의 이론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한다.

“보통의 인간은 의미를 통해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정신적인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드는 지각능력을 가진 비교(법)들을 사용해야한다. 왜냐하면 이 비교(법)들은 생각을 진정시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갖춰야만 하는 이론의 적용을 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Lamy 1675, 76)”

라미에 있어 웅변술은 특히 의미들과 관계하며 정념을 표현한다. 이러한 ‘감각적인’ 관념은 17세기 문체의 비물질적인, 즉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정념들의 원칙으로부터 추론된 문체의 체계를 검토해보면, 그가 제시한 문체의 정의는 매우 간단하다.

“모든 문체들에 대한 진정한 지식의 목록을 작성하려면 정념들이 받아들이는 표현법들 또는 말하는 방법에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Lamy 1675, 82)”

그는 항상 문체와 정념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도 말하기 때문에 담론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담론을 표현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감정의 특징들을 담론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Lamy 1675, 81)”

이처럼 대부분의 17세기 이론가들에 있어 문체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들이었지만, 라미에 있어서는 정념의 법칙들이었던 것이다. 17세기의 이론가들이 추구했던 이러한 문체의 다양성은 한편으로는 미학적 질서이고, 또 다른 한편인 라미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특징이다. 왜냐하면 담론은 문체를 통하여 영혼의 가장 커다란 움직임을 나타내야하고, 동시에 웅변가를 변화시키는 정념들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이다.

“감동한 인간의 담론은 같지 않다 (...) 담론은 의문문과 감탄문으로 섞이기도 하고, 빈번한 여담으로 중지되기도 한다. 게다가 담론은 무수히 많은 특정한 표현법과 여러 가지 말하는 방법으로 다양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법과 말하는 방법들은 또한 부드럽고 조용한 얼굴을 가진 화가 난 얼굴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말하는 방법과 쉽게 구별된다(Lamy 1675, 78)”

따라서 17세기의 일반적인 장식의 문체와 설득적이고 감동적인 정념의 문체들, 즉 미학적이고 논리적이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효과를 가진 문체들을 구분해야한다.

VIII. 은유(법)와 비유 언어

17세기의 송고 장르에서 가장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된 문체는 과장(법)에 이어 은유(법)이다. 은유는 분명히 송고 장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고대수사학과 17세기 프랑스 수사학에서는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문체였다. 고전주의 문체에서 이러한 은유는 문체적 장식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방법이며, 또한 재치 있고 세련된 특별한 문체 요소의 특징이었다. 니콜(Nicole)은 은유의 기원에서 잘 정의된 규칙들을 찾고 있다. 그에 있어 은유는 미학적 요소이고, 라미에 있어서는 표현 방법(*procédé expressif*)이 된다. 우리는 이미 라미의 수사학에서 어떤 ‘감각적인’ 관념을 암시한 바 있다. 정념의 문체들을 설명했던 라미는 ‘의미들’을 통하여 은유를 설명한다. 진리의 추론과 지식은 의미라는 수단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은유는 추상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정신의 눈으로만 느낄 수 있는 추상적 진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미를 통해서만 감지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정신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감각적인 경험에서 이루어진 추론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상적 표현들은 수수께끼가 되며, (...)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인들은 이러한 후자의 표현들만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물을 감각적으로 만드는 은유들이 감각적인 시인들의 문체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Lamy 1675, 224)”

따라서 은유는 비유 언어(*langage figuré*)를 창조하며, 17세기 말 이론가들은 이러한 비유 언어를 프랑스어에서 가장 커다란 장식으로 간주하였다. 당시의 문체론 분야에서는 은유를 통해 언어에 새로운 용어들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은유에서의 문체 사실은 곧 언어 사실이 된다. 니콜(Nicole)은 은유와 비유 언어의 공통관계를 발견했던 소수의 이론가 가운데 한 이론가이었지만,

문체와 언어의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는 못했다.(Nicole 1664, 23) 또한 17세기의 지나친 독창적 은유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통용되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바리(Bary)는 은유가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여러 군(신, 천사들, 인간의 육체, 동물들 등)으로 나누었다. 그는 은유의 특징들을 열거하여, 은유들을 종류별로 묶어냈으며 고대 저자들의 체계를 재생산하기도 하였다(Bary 1659, 269).

17세기에는 취향과 문체 장르의 변화보다도 은유에 주어진 규범이 더욱 잘 드러났다. 숭고 장르의 시대, 즉 전기고전주의 시대에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은유(métaphore continuée)를 선호하였지만, 후기고전주의시대에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부우르스(Bouhours)는 은유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준 예('루이, 벼락을 잡으면서 사자처럼 달려!')는 전기고전주의 시대와 후기고전주의를 구분하는 차이들을 보여준다(Bouhours 1689, 150~151). 이러한 종류의 은유인 완전한 추상화는 코르네이유(Corneille)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선호했던 기법이었다. 그들의 기법은 라미에 의해 설명된 사용의 필연성(즉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소재는 은유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은유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표현해야만 하는 예술가는 은유에 의한 유사성의 법칙을 잘 살려 밖으로 드러내야한다. 즉 예술가는 심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심리적 상황을 일정부분 왜곡해야 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작가 코르네이유도 역시 이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한편 은유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17세기의 재치 있고 세련된 문체의 취향 때문이었다. 벨가르드(Bellegarde)는 17세기의 가장 실천적인 기법인 은유적 언어, 즉 은유적 우언법(périphrase métaphorique)을 거부하고(p.92), 비유 언어를 받아들였다.

“비유 표현은 가장 위대한 장식이자 프랑스어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아함을 구성한다. 언어에 대해 더 많은 타고난 재능과 취향을 갖게 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찾는 일에 더욱 더 커다란 행복을 느낄 것이다(Bellegarde 1697, 서문)”

17세기 문체에서 비유 언어, 은유적 언어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의 하나였다. 비유 언어는, 재치 있고 세련된 문체들의 남용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기법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코르네이유, 라신을 비롯한 17세기의 모든 위대한 정신이 담겨있는 문체 기법이었다.

IX. 나가기

본 연구는 국내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연계 학문으로서의 17세기의 고전수사학과 문체이론, 수사법(문체)과 문체 장르의 이해하고자 당시의 수사학자나 학자의 저술에서 나타난 문체론의 적절한 형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17세기의 진정한 문체 이론 및 원칙을 세우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17세기 수사학을 통해 본 문체론에 관한 제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본 연구의 틀로 사용된 핵심적인 목록과 그 결과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 문체론의 기원은 학교에서의 수사학 교육과 관련된다. 17세기의 문체론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의 교수법 개론서들에 의해 준비되었기에 당시의 문체 자체에 관한 연구에서 수사학의 중요성을 구축하려고 했다. 학교 수사학들은 예비적인 문체론 과목을 담고 있다. 따라서 17세기의 문체론 학설은 수사학(당시에는 웅변술) 속에서 정립되었다는 점과, 17세기말경에 이르러는 미학과 문체에 관한 연구와 관련이 있었음을 밝혀보았다.

둘째, 17세기 문체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체를 수사학 또는 웅변술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17세기의 이론가들은 문체에 대하여 특별하게 연구하지 않았고, ‘문체’라는 낱말은 오늘날의 개념보다 상당히 좁은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문체는 낱말들(낱말의 선택, 올바른 관용어법 등)과 같은 비유 언어의 문제였다. 17세기 작가들은 문체를 어떤 특정한 문체가 아니라, ‘수사학에서의 웅변술’이라는 문제의 일부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웅변술을 통하여 사고와 감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르네상스시대의 프랑스 수사학은 시학을 함축하고 있었지만, 17세기의 수사학은 반드시 웅변적 문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수사학적 문체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문체는 수사학의 일부를 이루지만, 문체는 수사학에 의해 또는 수사학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았다. 수사학은 예술적 표현 그 자체였던 것이다.

넷째, 당시 이론가들은 웅변술에 대하여는 정의를 내렸으나, 문체를 위한 정의는 내리지 못했다. 문체가 웅변술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체의 구조는 아니었고, 지식인과 관련된 문체의 요소들이었다. 그렇다면 문체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위해 17세기에 나타나는 문체의 형식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하는 비물질적인(의식적 혹은 정신적인) 측면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고대 수사학은 숭고 문체, 평범 문체, 소박한 문체와 같은 세 개의 문체장르를 구별한다. 이러한 문체의 구별은 고대수사학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확립되었던 것이고 17세기 프랑스 저자들도 역시 이러한 문체의 구별을 그대로 이어 받아 채택하였다.

여섯째, 모든 저자들이 문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문체들의 다양성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편으로는 미학적 질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적 특징이다. 17세기의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미학적 관점에서 문체를 다루었다면, 라미는 심리학을 통해 문체를 설명한다. 당시의 이론가들에 있어 문체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들이었지만, 라미에 있어서는 정념의 법칙들이었다.

마지막으로, 17세기에도 은유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은유는 단지 문체론적인 장식(문식)일뿐만 아니라, 표현의 방법이다. 게다가 은유는 특별한 문체의 특징적 요소가 되며, 재치 있고 세련된 문체의 특징이 된다. 따라서 은유는 비유적 언어를 창조하며, 이러한 언어는 17세기 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의 하나이다. 재치 있고 세련된 문체들의 지나친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유 언어는 예술적 표현에서 중요한 기법이 된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17세기 수사학, 문체론 분야에 관한 미비점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근, 현대 수사학뿐만 아니라, 문체론 연구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전 문체이론 또는 학설의 기초적인 개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17세기 수사학과 문체 이론을 보완하여 고전 문체론 분야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17세기의 수사·문체 이론가들에게서 가져온 구체적 예시나 설명을 다른 시대의 수사법과 문체론 저서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17세기 고전 문체 용어의 이해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Aranaud, P. & Nicole, P.(1992). *La logique ou L'art de penser*. Paris: Gallimard.
- Bary, R.(1659). *Rhétorique françoise*. Paris: Le Petit.
- Bellegarde M.(1697). *Réflexions sur le ridicule et sur les moyens de l'éviter*, Paris: Chez Jean Guignard.
- Bouhours, D.(1671). *Les entretiens d'Ariste et d'Eugène*. Paris: Mabre-Cramoisy.
- _____(1691). *La Manière de bien penser dans les ouvrages d'esprit*. Lyon: Chez, Horace Molin.
- _____(1689). *Pensées ingénieuses des anciens et des modernes*. Paris: Veuve de Sébastien Mabre-Cramoisy.
- Bretteville, E.(1689). *L'éloquence de la chaire et du barreau*. Paris: BNF.
- Du Bois G.(1694). *Avertissement en tête de sa traduction des Sermons de saint Augustin*. Paris: Coignard.
- Fénelon(1718). *Dialogues sur l'éloquence, avec une Lettre à l'Académie française, in-12*. Paris.
- Gibert, B.(1706). *Réflexions sur la Rhétorique*. Paris.
- _____(1703). *De la véritable éloquence*. Paris: Michel David.
- Guéret, G.(1666). *Entretiens sur l'éloquence de la chaire et du barreau, in-12*. Paris.
- Jacobet, H.(1928). *A propos du je ne sais quoi*. in Rev. Hist. Fr.
- Le Grand(1653). *Discours pour la Rhétorique françoise De Bary*.
- La Mesnardière, P.(1639). *La Poétique*. Paris: Slatkine.
- Lamy, B.(1675). *La rhétorique ou l'Art de parler*. Paris.
- Lamy, Fr.(1698). *Traité De la Connaissance de soi-même*, Pralard, de 1694 à 1698.
- _____(1704). *La Rhétorique du Collège trahi par son Apologiste*, Paris: Mariette.
- Mornet, D.(1929). *Histoire de la clarté rançaise*. Paris: Vrin.

- Nicole, P.(1664). *Traité de la foi humaine et l'Apologie pour les religieuses de Port-Royal*. Paris.
- Ogier, Fr.(1624). *Apologie pour son livre contre les athéistes*.
- Rapin, R.(1672). *Réflexions sur l'usage de l'éloquence de ce temps*. Paris.
- _____(1676). *Réflexions sur la poétique d'Aristote et sur les ouvrages des poètes anciens et modernes*. Paris.
- _____. *Œuvres complètes, publiées à Amsterdam en 1709-1710*.
- Renaud, A.(1699). *La Rhétorique de l'honnête homme ou la Manière de bien écrire des Lettres*. Amsterdam: George Gallet.
- Saint-Paul, D-Ch.(1632). *Tableau de l'Eloquence françoise ou se voit la maniere de bien escrire*. Paris.
- Vaugelas, C-F.(1647). *Remarque sur la langue francaise, Veuve Jean Camusat & Le Petit*. Paris.

Abstact

A study on the French rhetoric and the diverse themes on stylistic doctrines in 17th century

Jong Oh Lee*

In this study we observed the diverse themes on stylistic doctrines which are presented to the theorists of 17th century in French rhetorics.

We watched the important arguments of the stylistic problems which are explained on the one hand by the influence of the ancient theories, and on the other hand by the precepts of Cicero, by “genera dicendi” of Quintilianus, etc

Especially we revalued, from the composition to grammars, the stylistic function and stylistic role of the 17th century which refered with the forms of the style and the various stylistic devices of the theorists.

To establish a stylistics of the 17th century, influenced with the principles and experiments which go back to Antiquity, we described, from the points of view of the rhetoricians, the rhetoric origin, and the role of school rhetorics, the style in rhetoric, the movements against rhetoric, the elements of the style, the ornaments and the passion of the figure, the metaphor and the figured language, etc

Closing this study, our remark to note is that the theorists of the 17th century creates the true stylistic doctrines, its goal is to arrive to a detailed knowledge of the expressive processes, with the concrete concepts about the elocution and with the rules of the style. This is the reason for which we will find the identity of the traditional stylistic field.

■ 논문접수일 : 2010년 7월 1일, 논문심사일 : 2010년 8월 1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5일